

대학 신입생 대상 전략교양 교과 콘텐츠의 팀티칭 운영 효과 -지역대학(중등특수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s of Team Teaching on Strategic Cultural Curriculum Contents against Freshmen

-focused on case of Local University(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류숙열, 박혜성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Sook-Ryeol Rhyou(rhyou@u1.ac.kr), Hye-Sung Park(hspark01@u1.ac.kr)

요약

새로운 대학생활과 학습 환경의 적응 및 교수·교수자와의 관계 형성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등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지역 대학 전략교양 교과(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팀티칭 운영(지도 교수 별 팀티칭 시행, 표준 교재 중심 지도 vs. 자율 멘토링 지도)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충북에 소재한 신입생 대상 수강인원 31명과 교수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도구는 대학 전략교양 교과 개발팀이 제공한 '의사소통능력 평가지' 및 '교과 만족도, 대학 적응감, 친밀도' 그리고 관련 의견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제작·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은 대응 및 독립 표본 T-검정과 평정척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유형의 팀티칭 교육과정 운영이 전략교양 교과의 수업목표측면(의사소통능력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준 교재 지도 중심 운영 팀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둘째, 두 가지 유형의 팀티칭 운영에 따라 전략 교양 교과를 이수한 수강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활 적응 측면(대학 적응감, 친밀감)에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이 각각 유의한 차이의 변화를 나타내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전략교양 교과의 이러한 팀티칭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습자(수강생)들과 교수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과의 만족도와 관련 의견이나 인식(강·약점, 개선 의견)그리고 기타 변화 상황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중심 팀티칭의 교수 형태와 표준 콘텐츠 운영 방안의 교육적 함의점을 고찰하고 제안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 전략교양 교과 | 팀티칭 | 표준 교과 |

Abstract

A lot of colleges have made continued efforts to help freshmen adapt themselves to a new school life and environment and build a decent relationship with faculty and other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the effectiveness of team teaching(team teaching by academic advisor, standard textbook-centered guidance vs. autonomous mentoring) on strategic cultural curriculum as a way to help freshmen adapt themselves to a school life. For research subjects, 31 enrolled freshmen and 5 professors from a college in Chungbuk were selected. In terms of research tools, 'Communication Competence Assessment Sheet' provided by Strategic Cultural Curriculum Development Team and a simple questionnaire on 'curriculum satisfaction, adaptation to school and intimacy'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paired t-test,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rating scale were conducted.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types of team teaching on the goal of strategic cultural curriculum('improvemen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in a standard curriculum(textbook)-centered team. Second, when adaptation to a school life(school adaptation, intimacy) perceived by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e strategic cultural curriculum according to two different types of team teaching curriculum was analyzed,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at standard textbook-centered guidance team. Third, this study has examined other changes, satisfaction, opinions and perception(strength, weakness, opinions for improvement) on the curriculum perceived by the students(learners) and faculty regarding about team teaching curriculum.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reviewed. And a suggestion and limits were presented.

■ keyword : | Adaptation to School Life by Freshmen | Strategic Cultural Curriculum | Team Teaching | Standard Curriculum |

I. 서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초기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라는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대학 진학, 취업, 진학 준비 또는 군 입대 등 다양한 전환적(transitional) 선택을 하게 된다[1][2]. 이 중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대학생활과 새로운 학업 및 학습 환경에의 적응, 그리고 새로운 교수와 교수자와의 관계 형성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점 등 정서적 독립이나 사회적 적응 요구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표출하거나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3-5]. 이러한 어려움이나 부적응에 놓여있는 대학 신입생들을 돕기 위하여 국, 내외 여러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5-9]. 특히 대학 1학년 신입생 기간 동안의 적응은 대학생활의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고 하는 입장[8]에서 국내 대학에서도 최근 신입생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며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10-13]. 하지만 특히 최근 국내 대학의 신입생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은 도입기적인 상황으로서 이 인경, 김장희[12]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수업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탄탄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운영되는 경우보다는 교수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 수업 내용이나 활동이 즉흥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교과 운영 결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 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일관성이 없고, 관련 연구나 자료 또한 미약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대학 내에서 교과 형태로 개발된 전략교양 교과의 수업 운영과 콘텐츠의 형태'가 수강생인 신입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지각될 수 있는지, 이와 더불어 교수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 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용한 교수적 접근 형태(수업 운영)의 한 유형인 팀티칭(지도학생-지도교수별 운영 팀티칭)을 적용하여 그 영향과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학 내 교과의 팀티칭의 적용

이나 운영에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특수교육 분야를 포함[14], 2012년 특정대학(서강대) 수강생을 대상으로 '철학과 문학'이라는 교양강좌에 대해 팀티칭 교수법을 시행한 사례에 대해 연구한 김성희[1]의 연구가 유일한 정도이다. 팀티칭(team teaching)이란 협력교수 또는 협동교수의 다른 지칭으로서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다양한 능력의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로 같은 공간 내에서 함께 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4]. 또 이는 196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육과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교사의 교수 조건 향상, 광의적으로는 교육 환경의 향상을 위해 개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교수 방법이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의 전체적인 지원이 있을 때 효과가 큰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15-18]. 이러한 팀티칭 운영을 신입생 대상 교양전략 교과에 적용하되, 대학생 멘토링 요구 조사[19]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멘토 대상 중 하나인 '교수', 특히 '지도 교수'에 의한 운영을 시행하여, 적은 인원(6명 내외)의 지도 대상 신입생 중심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수자의 교수 여건을 개선하면서[17][18], 동시에 교육과정의 수업 콘텐츠에 따라 학습자인 수강생, 특히 신입생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탐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입장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교양 교과('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팀티칭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지도 교수 별 '표준 교재 중심 지도 운영 팀'과 '자율 멘토링 지도 운영 팀'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면서, 그 결과에 관련한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 대상 전략교양 교과 콘텐츠의 팀티칭 운영(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vs. 자율 멘토링 지도 운영 팀)이 교과 수업목표(의사소통 능력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 신입생 대상 전략교양 교과 콘텐츠의 팀티칭 운영(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vs. 자율 멘토링 지도 운영 팀)이 전략 교양 교과를 이수한 수강생들이 지

각하고 있는 대학생활 적응 측면(대학 적응감,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 신입생 대상 전략교양 교과 콘텐츠의 팀티칭 운영(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vs. 자율 멘토링 지도 운영 팀)에 대해 학습자(수강생)들과 교수자들이 각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과의 만족도와 이러한 운영에 대한 인식 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대학 신입생들(충북 소재 대학, 중등특수교육과)을 대상으로 운영한 전략교양 교과(‘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팀티칭 적용-즉, 지도 교수 5명의 팀티칭 운영, 표준 교재 중심 지도 vs. 자율 멘토링 지도-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학기 초기와 후기에 사전·사후 관련 평가 및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전략교양 교과의 팀티칭 수업의 학습자들인 수강생들과 그리고 교과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수강생) 대상은 충북 소재 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의 1학년 신

입생(수강생) 29명과 1학년은 아니지만 군복무 후 새롭게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2학년으로의 복학 첫 학기 학생 1명, 그리고 개인적인 요구(needs)에 의해 수강신청을 한 2학년 학생 1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10월초 학업을 중단한 1학년생 1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30명의 학습자(수강생)를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

또한, ‘협력적 교수(co-teaching의 의미)’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게 될 ‘교수자’들은 총 5명으로서 동(同) 대학, 동 학과 소속으로 복무하고 있는 전임 교원들(정년 트랙 및 비정년 트랙)이었다. 연구대상인 학습자 및 교수자에 대한 간단한 개괄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교수자)의 특성

대상	교수자 특성		
	성별	연령	대학교육경력/직위
교수자1	여	49세	10년 이상/교수
교수자 2	남	51세	7년/부교수
교수자 3	여	48세	8년/부교수
교수자 4	여	37세	4년/조교수
교수자 5	남	43세	1년(이하)/조교수

표 1. 연구대상(학습자)의 특성

대상	학습자 특성			대상	학습자 특성		
	성별	학년	기타		성별	학년	기타
수강생 1-강영*	남	1	군 제대	수강생 17-이예*	여	1	장애형제 가짐
수강생 2-권정*	여	1	.	수강생 18-이용*	남	1	.
수강생 3-김봉*	남	1	재입학, 군 제대	수강생 19-이재*	남	1	.
수강생 4-김성*	남	1	.	수강생 20-이해*	여	1	.
수강생 5-김우*	남	1	.	수강생 21-임다*	여	1	.
수강생 6-김윤*	남	1	.	수강생 22-임연*	남	1	.
수강생 7-김은*	여	1	재입학	수강생 23-장주*	여	1	.
수강생 8-김지*	여	1	.	수강생 24-장*a	남	1	.
수강생 9-나필*	남	1	재입학, 군 제대	수강생 25-정성*	남	1	.
수강생 10-노정*	남	1	.	수강생 26-정*b	남	1	.
수강생 11-박현*	여	1	.	수강생 27-최유*	여	1	.
수강생 12-엄은*	여	1	.	수강생 28-한승*	남	1	.
수강생 13-유효*	여	1	.	수강생 29-남기*	남	2	군 제대
수강생 14-윤대*	남	1	.	수강생 30-이창*	남	2	.
수강생 15-이민*	여	1	.	수강생 31-이중*	남	1	자퇴

2. 연구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소개

가. 연구의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15년 8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5년도 2학기 동안 진행하였다. 이 중 학기의 첫 주는 수업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주간으로 강좌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강생에게 설명하였고, 그 이후 5명의 교수자가 지도 교수별¹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1학년 신입생 지도학생(6명 내외)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지도·운영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 5명의 교수자 중 한 교수자는 지도 대상 학생 중 1명이 학기 초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5명의 수강생을 담당하였고, 또 다른 한 교수자는 2명의 2학년 수강생을 추가 담당하게 되어 8명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나머지 세 명의 교수자는 6명의 지도 대상 1학년 학생을 담당하게 되었음)

강좌에 따른 수업 및 지도의 운영은 9월 3일 부터 학기말까지 매 주 목요일마다 2시간 수업 강좌로 운영되었으며, 세 명의 교수자는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표준교재를 중심(85~90% 이상 준수)으로 운영하였고, 두 명의 교수자는 강좌의 교수 목표와 목적을 의식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은 자율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지도하여 15주차에 걸친 수업을 종료(12월 3일)하였다. 또한 학기 초인 9월 3일과 10일에는 학습자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 실시와 수업 내용을 진행하였고, 그룹별 팀티칭 수업 종료 후 12월 7일~15일 동안에는 전체 학습자(수강생)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팀티칭 운용 '전략교양 교과'

본 연구를 위해 핵심이 되었던 전략교양 교과는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탈락, 또는 적응하지 못하고 대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신입생(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충북 소재) 'E & 교양 교육 센터'에서 2015년 2월부터 본격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즉 신입생들이 다양한 대

학생활 적응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찰을 하고 자기 효능감을 갖추어 대학에서 만나는 교수, 교수 등과의 인간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며 학습동기와 학업 몰입도 및 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21].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2015년 1학기에는 '자아탐색과 대학생활'이라는 교과(주 1회 1시간 강좌, 1학점제)로 일차 시행하였고, 2학기에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교과(주 1회 2시간 강좌, 2학점제)로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신입생(재학생)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건전한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성 기술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학기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교과의 운영 효과에 관련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교양 교과의 시행을 위해 'E & 교양 교육 센터'에서는 총 15주차로 구성된 '표준 강의계획서'와 더불어 차시별 주요 개념 및 수업목표와 개요, 그리고 수업 지침(Tip)과 함께 과제 안내 및 수업 자료, 또 진행방식-이론과 실습 그리고 발표의 순-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 교재"를 제공(# 2015년 8월 12일 내용을 간단히 안내하고 교과 담당 교직원 전체에게 제공함)하였고, 이를 토대로 팀티칭 교과를 운영하였다. 대학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교재 내용의 예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다. 유형에 따른 팀티칭 운영 내용

본 연구를 위해, 교수자별로 1학년 지도 대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자 소그룹을 구성(6명 내외)하여 팀티칭 형태로 교과를 운영하였다. 이는 두 명 이상의 교수자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여러 수준의 학생을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게 교수하는 팀티칭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평행교수(parallel teaching)'와 유사한 운영 방식이었으며[22][23], 교수자 중 한 명이 대표 교수자로서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 교수자는 1회의 전략교양 교과에 대한 교육과 수업 컨설팅을 받았으며, 표준 교재 중심 강좌의 운영을 안내하면서 연구의 진행을 이끌고 교수자간 2회의 미팅 주제와 성적업력을 담당하였다.

¹ 연구 대상자들의 학과에서는 대학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년 별 지도 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지도 대상 학생들(6명 내외)로 연계(matching)하여 소그룹을 구성, 팀티칭으로 교과를 운영하였음.

1. 의사소통의 이해

□ 수업목표

1. 의사소통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 분석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부족한 의사소통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할 수 있다.

□ 수업개요

1.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한다.
2. 의사소통 중, 불편했던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 수업 TIP

1.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기
2. 일상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종류 알아보기
3. 의사소통능력 검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해 보기

□ 과제 안내

수업자료를 활용한 이후, 자신의 의사소통능력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해 보기 (해당 차시 모든 작업은 최종 결과물 - '자신만의 의사소통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함)

□ 수업자료

■ 의사소통이란?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이다. 신(神)이 자신의 덕(德)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열(熱)이 어떤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로 전해지는 따위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분여(分與)·전도(傳導)·전위(轉位) 등을 뜻하는 말이다. 근래에는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인다.

출처-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두산백과)

■ 의사소통의 구성

이해 → 표현 → 이해 → 표현
[듣기/읽기] [말하기/쓰기][듣기/읽기][말하기/쓰기]

의사소통의 4가지 양식 : 듣기/읽기/말하기/쓰기

■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10가지 직업기초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중 하나로 꼽히며,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및 기초외국어능력으로 구분된다.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	--------	------	--------	---------

.....<중략>.....

□ 활동 및 토의

- 의사소통에서 내가 가장 부족한 영역은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 의사소통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이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
- 위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자

그림 1. 전략교양 교과('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표준 교재 내용 예시

연구의 대상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표방하고 있는 '2015년도 1년간, 신입생 대상 교양전략 교과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침에 따라, 연구 시행 주체 학과(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대학 측(E & 교양교육센터)이 제공한 표준 강의계획서와 표준 교재에 따라 운영하는 유형 한 팀(3명의 교수자-학습자 그룹, 수강생 총 20명), 그리고 전략교양 교과의 운영 취지 및 목적, 또 표준 교재의 주차별 학습 목표와 내용을 주지하고 있는 교수자가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멘토링 프로

그램 내용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또 다른 한 팀(2명의 교수자-학습자 그룹, 수강생 총 11명)으로 구분되어 교양전략 교과를 지도·운영하였다. 두 유형 즉, 표준 교재의 주차별 내용에 따라 진행(90% 내외)하였던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의 교수-학습 내용(콘텐츠)과 자율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였던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표준-교재 중심 운영 팀의 주차별 교수-학습 내용

주차	강의내용	주요개념	교수-학습 중심 활동
1	오리엔테이션		
2	1. 의사소통의 이해	의사소통의 정의/유형	*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등에 대해 이해. 학습자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 (예, '의사소통능력 평가' 시행)를 가지며, 부족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전략 등을 논의(6명 내외 모둠 집단 수강생 각자 의견 도출, 교환).
3	1-1. 그룹 활동 및 토의		
4	2. 의사소통의 과정	의사소통과정 분석(교류 분석)	*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을 알고 타인(타 학습자)의 '의사소통 과정' 을 일선에서 관찰, 분석, 또 1주간 동안 자신의 의사소통 측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각자 시도/적용. 교수자 및 학습자(수강생들)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 인간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면서 학습자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고(마인드맵 자료를 제공, 시행함). 또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8가지 유형-지배형, 복종형, 사교형, 고립형, 친화형, 냉담형, 순박형, 실리형)을 분석하여 학습자 자신의 해당 유형을 찾아 발표해 보기.
5	2-1. 그룹 활동 및 토의		
6	3.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의사소통 스타일 진단	*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경청이 가져다주는 의사소통 효과 소개하기. 더불어 경청 않는 사람들의 유형 4가지(꿈꾸는 몽상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경청 유형에 대해 반추 & 말하기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만의 효과적인 스피치 전략을 구성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자신에 대한 프로필과 정체성, '특수교육' 전공)로 개별 과제, 발표시간 갖기
7	3-1. 그룹 활동 및 토의		
8	4. 효과적인 의사소통(경청하기)	나의 경청 진단	
9	4-1. 그룹 활동 및 토의		
10	5. 효과적인 의사소통(말하기)	주제중심 말하기	
11	5-1. 그룹 활동 및 토의		
12	6. 효과적인 의사소통(쓰기)	리포트 작성법	
13	6-1. 그룹 활동 및 토의		
14	7. 나만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포트폴리오 형식발표	
15	학기말		* 학습자 전원에게 학기 초에 실시한 '의사소통능력 평가' 등의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자 개별 포트폴리오 화일 복을 만들어 한 학기 동안 학습하고 활동한 내용과 자료 (교수자가 제공 자료, 개인 피드백 자료 및 성찰 작성 자료 등) 등을 스크랩하고 전체적인 소회와 자신의 의사소통 측면 개선 프로세스나 방안을 요약 (발표나 제출)해 보게 함 + 전체적으로 전시 수업 내용에 대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수자와 학습자 양방향의 다양한 질문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교과 관련이나 수강자와의 교류를 위해 대화를 노력하였음 (예, 스마트폰 교과 단독 대화방 활용 등) + 학기말 과제로서 학습자 본인의 교수-학습 내용 포트폴리오 복을 제출하고, 관련 개별과제나 자료 등은 강의카페에 올려 공유하도록 함.

표 4. 자율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팀의 주요 교수-학습 내용

멘토링 영역	주요 교수-학습 내용
대학 적응 및 친교 활동 (사례 및 교우 간)	- 대학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중요성 알기 등 교재 내용 반영 내용(설명 및 토론, 사전-사후 평가 등) - 대학생활 중의 어려움과 고민 또는 진로에 관련한 모둠 또는 개별 상담 및 지도 - 대학 인근 지역 내 산책이나 교내 카페 또는 영화관 방문 등의 외부 활동(영화 감상이나 친목 및 교류 활동 중심)

3. 연구의 도구 및 자료의 처리

가. 연구 도구: 의사소통능력 평가 및 설문조사 내용

(1)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

본 연구에서 시행하였던 전략교양 교과('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핵심적인 수업 목표인 의사소통능력 측면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 측(E & 교양교육센터)이 박동열[24]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하고 표

준 교재에 제시한 '의사소통능력 평가지'를 활용하여 학습자(수강생)들에게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의 총 문항 수는 22문항이었으며, '의사소통,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듣기이해), 의사표현(구두표현), 기초외국어'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3점 평정척도('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 '보통인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적용의 평가지로서 학습자에게 평가

의사소통능력 평가지

문항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보통인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1. 나는 의사소통능력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나는 의사소통의 저해요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개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나는 문서이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나는 문서이해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7. 나는 문서이해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8. 나는 문서를 통한 정보 획득 및 종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9. 나는 체계적인 문서작성의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0. 나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의 종류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11. 나는 문서작성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 나는 문서작성에서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과 연출방법을 안다.			
13. 나는 경청의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4. 나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 의견의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5. 나는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고쳐야 할 습관을 알고 있다.			
16. 나는 대상과 상황에 따른 경청법을 설명할 수 있다.			
17. 나는 정확한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8. 나는 원활한 의사표현의 방해요인을 알고, 관리할 수 있다.			
19. 나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의 기본요소 및 특성을 안다.			
20. 나는 기초외국어능력의 개념 및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1. 나는 비언어적 기초외국어 의사표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2. 나는 기초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출처-직업기초능력 모듈 프로그램(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방법

문항	수준	개수
1~4번 의사소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그저 그렇다.	()개
5~8번 문서이해	그런 편이다.	()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9~12번 문서작성	그저 그렇다.	()개
	그런 편이다.	()개
13~16번 경청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그저 그렇다.	()개
17~19번 의사표현	그런 편이다.	()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20~22번 기초외국어	그저 그렇다.	()개
	그런 편이다.	()개

그림 2. 의사소통능력 평가지 및 평가방법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측면의 수준을 진단한 후, 한 문항이라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나올 경우 부족한 영역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하였다.

(2) 대학생활 적응 측면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
두 가지 유형의 팀티칭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전략교양 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수강생(학습자)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교과를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느끼거나 인식하고 있는 해당 척도에 표시 (o) 해 주십시오! (1-매우 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5-매우 높은 편이다) 또, 서술형 요구 문항은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1. 수강생께서는 현재 대학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본인의 ‘대학 적응감(적응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	---	---	---

2. 수강생께서는 현재 대학 생활 중 학과의 교수와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친밀도(친밀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	---	---	---

3. 학습자로서 본 교과 운영(매뉴얼 내용에 따른 운영 또는 자율 멘토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	3	4	5
---	---	---	---	---

4. 학습자로서 본 교과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생각하시거나 느끼고 계신 장점, 단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장점-
단점-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

* 수강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과 교수님들께

안녕하세요. 저희학과 1학년 교과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팀티칭, 수업 연구) 운영 및 성과 등에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과 1학년 학생 지도와 교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시어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내용은 연구에 관련된 테이터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업 연구자 교수 드림

● 문항을 읽고 해당 척도에 표시 (o) 해 주십시오! (1-매우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또 서술형 요구 문항은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1. 교수자로서 본 교과 운영(매뉴얼 내용에 따른 운영 또는 자율 멘토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	3	4	5
---	---	---	---	---

-또 자율 멘토링 운영 교수님의 주요 교과 운영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2. 1학년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	---	---	---

- 구체적으로 지도성과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본 교과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장점, 단점,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
단점-
건의사항-)

그림 3. 학습자 · 교수자 대상의 설문지 내용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대학 적응감(적응 정도)’과 대학 생활 중 학과의 교수 및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친밀도(친밀 정도)’, 그리고 두 가지 교과 운영 내용에 따라 수강생으로서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만족도’ 및 관련 의견에 대해 5점 평정척도 방식과 서술형 기술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과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자 5명을 대상에게도 ‘교수자로서의 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도에 대한 유용성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기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학습자에 대한 ‘대학적응감’, ‘친밀감’에 대한 조사는 학기 초와 학기말에 각각 실시하였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지각·인식하고 있는 ‘교과만족도’나 기타 의견(강, 약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는 학기말에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학습자·교수자 대상의 설문지 내용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3) 기타

상기에서 소개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정량적 결과 내용 중심) 이외에도, 본 연구의 실제 사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주 대상자였던 대학 신입생들(수강생)들이 작성한 학기말 성찰일지를 제시하고 살펴보고 이들의 과정적 변화 측면을 알아보았다.

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주요 세 가지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평가 및 설문 도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즉 학습자(수강생) 총 30명의 사전·사후 의사소통능력 평가 결과와 대학생활 적응 측면(적응감, 친밀감) 평정 평가 그리고, 교과 만족도에 대한 평정 및 학습자의 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이 수집되었고, 이와 함께 교수자 총 5명이 지각하고 있는 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운영 관련 인식에 대한 자료 또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data) 중, 수강생(학습자)이 수행한 의사소통능력 평가 데이터 가운데에서 그 수행이 불충분하거나 무성의한 것 등은 제외시켰다. 이에 ‘표준 교재 중심 운

영 유형 팀’은 총 16명분의 학습자 자료가, 또 ‘자율적 멘토링 중심 운영 팀’은 총 9명분의 학습자 자료가 실제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총 25명분의 자료가 분석 처리됨).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 및 독립 표본 T-검정과 평정 척도 평가에 대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기타 정성적 측면의 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학습자(신입대학생 수강생)의 성찰일지는 지면의 할애상원(raw)자료의 일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1. 전략교양 교과 팀티칭 운영에 따른 교과 수업 목표 측면의 영향

본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전략교과 팀 티칭 운영 수업을 적용한 이후, 신입생 중심의 학습자(수강생)들은 교과의 수업목표인 의사소통측면의 향상을 얻을 수 있었는지 또 두 가지 팀티칭-평행교수-유형(콘텐츠)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즉, 9월(학기 초)과 12월(학기말)에 실시되었던 사전·사후 ‘의사소통능력 평가지’의 시행 결과를 통해서, 대학 측(E & 교양교육센터)이 제공한 표준 강의계획서 및 표준 교재 내용에 따라 운영한 팀(3명의 교수자-학습자 그룹, 수강생 총 20명)과 교과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주지한 교수자가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내용으로 수업을 운영한 팀(2명의 교수자-학습자 그룹, 수강생 총 12명)을 비교하였다. 전자의 운영 팀 총 수강생 20명 중에서 미흡한 자료를 제외시킨 후 결과 처리 데이터로 활용된 것은 16명분이었으며, 후자 팀의 경우에는 총 수강생 12명 중에서 미흡한 자료를 제외한 9명분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가지 유형의 팀티칭 그룹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정한 집단 내의 검정 변수에 대해 사전, 사후의 전후 비교-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고, 두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한 검정 결과인 독립 표본 T 검정의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5]와 [표 6]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측이 개발하여

표 5. 표준교재 중심 운영 팀, 사전-사후 '의사소통능력지 평가' 의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N)	평균±표준편차	P
사전 검사에서의 교과 목표 측면 (의사소통능력 측면의 향상)	16	40.81±6.64	0.000
사후 검사에서의 교과 목표 측면 (의사소통능력 측면의 향상)	16	52.00±5.80	

P<.001

표 6. 자율 멘토링 운영 팀, 사전-사후 '의사소통능력지 평가' 의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N)	평균±표준편차	P
사전 검사에서의 교과 목표 측면 (의사소통능력 향상)	9	51.55±15.46	0.346
사후 검사에서의 교과 목표 측면 (의사소통능력 향상)	9	45.88±7.33	

표 7.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과 자율 멘토링 운영 팀 간의 독립표본 검정 결과

집단 구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	P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A팀)	16	52.06	5.80	1.224	0.029
자율 멘토링 운영 팀 (B팀)	9	45.88	7.33		

P<.005

제공한 콘텐츠(강의계획서 및 표준 교재 내용)로 교양 전략 교과를 지도한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은 사전·'자율 멘토링 운영 팀'은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표준 교재 중심 팀티칭 운영 팀만이 교과의 핵심적인 교수목표 영역이었던 '의사소통능력 측면'에 유의미하고도 긍정적인 수업 운영의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또 한편,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사전의 의사소통능력지 평가 결과보다 사후의 결과가 저조하였던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은 사전 평가 당시의 표준편차 폭이 컸음을 고려 할 때, 학습자들이 충분한 이해와 성실성으로 평가에 응하지 않고 지도 교수를 의식한 긍정적 평정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 등이 추정되었다.

더불어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과 '자율 멘토링 운영 팀' 간의 집단 간 결과 비교(독립표본 T검정)에서도 표준 교재 위주의 운영 그룹(N=16명)이 자율적 멘토링 운영 그룹(N=9명)보다는 유의하게 효과성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사후 '의사소통능력지 평가' 시행 결과에 대한 대응표

본 T검정의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수의 목적과 취지는 지향하되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교수자의 자율적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지도한

2. 전략교양 교과 팀티칭 운영에 따른 학습자의 대 학생활 적응 측면에서의 영향

두 가지 유형의 전략교과 팀티칭 운영에 따라 학습자(수강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측면, 즉 '대학 적응감(대학생활 적응 정도)'과 '친밀도(교우 및 교수와의 친밀 정도)'에 대해 5점 리커트 평정 척도 방식(1-매우 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5-매우 높은 편이다)의 설문 조사 내용[그림 3]으로 사전, 사후 평가를 시행한 결과는 [표 8-표 11]과 같다. 즉 [표 8]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N=16)'은 사전, 사후 '대학 적응감' 및 '친밀도' 평정 평가 비교 결과(대응표본 검정)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p<.001과 p<.005)를 나타내어 수업 운영의 효과성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표준교재 중심 운영 팀, 사전-사후 '대학 적응감' 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N)	평균±표준편차	P
사전 설문 조사 시, 대학 적응감	16	2.50±0.73	0.000
사후 설문 조사 시, 대학 적응감	16	4.38±0.62	

$P < .001$

표 9. 자율 멘토링 운영 팀, 사전-사후 '대학 적응감' 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N)	평균±표준편차	P
사전 설문 조사 시, 대학 적응감	9	3.89±1.17	0.081
사후 설문 조사 시, 대학 적응감	9	4.55±0.53	

표 10. 표준교재 중심 운영 팀, 사전-사후 '친밀도' 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N)	평균±표준편차	P
사전 설문 조사 시, 친밀도	16	3.00±1.26	0.001
사후 설문 조사 시, 친밀도	16	4.31±0.79	

$P < .005$

표 11. 자율 멘토링 운영 팀, 사전-사후 '친밀도' 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N)	평균±표준편차	P
사전 설문 조사 시, 친밀도	9	3.77±1.09	0.065
사후 설문 조사 시, 친밀도	9	4.55±0.53	

표 12. 두 유형의 운영 팀 간, 사후 '대학 적응감' 평정 평가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결과

집단 구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	P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A팀)	16	4.375	0.619	0.376	0.469
자율 멘토링 운영 팀 (B팀)	9	4.555	0.527		

표 13. 두 유형의 운영 팀 간, 사후 '친밀도' 평정 평가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결과

집단 구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	P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A팀)	16	4.312	0.793	2.612	0.421
자율 멘토링 운영 팀 (B팀)	9	4.555	0.527		

하지만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의 경우 [표 9]와 [표 11]에는 사전, 사후 ‘대학 적응감’ 및 ‘친밀도’ 평정 평가 비교 결과(대응표본 검정)에서 모두 향상의 결과는 보이고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적으로 교과 운영 학기말에 실시한 사후 평가 결과만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대학적응감’과 ‘친밀도’에 대한 비교(독립표본 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표 12][표 13], 두 유형의 팀티칭 운영 집단 모두 평균 4.3이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3. 학습자 · 교수자의 ‘교과 만족도’ 와 운영에 대한 인식

두 가지 유형의 전략교과 팀티칭 운영 후,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양전략 교과의 만족도를 5점 리커트 평정 척도 방식의 설문조사[그림 3]를 통해 살펴 보았다. 즉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의 ‘학습자 교과 만족도’는 4.38이고 ‘교수자의

교과 운영 만족도’는 4.33으로 유사한 정도의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달리,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은 ‘학습자의 교과 만족도’가 4.44로서 ‘교수자의 교과 운영 만족도’ 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국 [표 15]와 [표 16]에서 보여주듯이, 두 유형의 팀(표준 교재 중심 팀, 자율 멘토링 운영 팀)간의 ‘학습자/교수자 교과 만족도’에 대한 비교 검정(독립표본 검정)에서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교과 만족도’는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이 조금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수자의 교과 만족도’는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이 다소 우위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서술 형태의 기술 내용)를 통해 수집된 의견(강, 약점과 개선 의견 중심)으로는 학습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대학 생활 자체의 만족도나 관심이 다소 증진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지도 교수와의 관계나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학기말 후반부에는 여러 과

표 14.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과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의 학습자 · 교수자 ‘교과 만족도’

구분	학습자의 교과 만족도		교수자의 교과 운영 만족도	
	사례수(N)	평균(M)	사례수(N)	평균(M)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16	4.38	16	4.33
자율 멘토링 운영 팀	9	4.44	9	4.00
전체	25	4.40	25	4.20

표 15. 두 가지 유형의 운영 팀 간, 학습자의 교과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결과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	P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A팀)	16	4.375	0.718	0.003	0.819
자율 멘토링 운영 팀 (B팀)	9	4.444	0.726		

표 16. 두 가지 유형의 운영 팀 간, 교수자의 교과 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결과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	P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A팀)	16	4.333	0.577	15.000	0.797
자율 멘토링 운영 팀 (B팀)	9	4.000	1.414		

목의 수업과 과제 등으로 과부하를 느껴 발표 등에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교수자들은 전반적으로 소수의 대상 또는 지도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집중도 있는 수업 및 접점을 마련하여 연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수업의 목표 지향은 물론, 신입생의 학과 및 학과 생활 적응과 친밀도 향상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지각, 서술하였다. 그렇지만 한 교과와 '표준 교재' 내에 간단한 소검사 구성이 너무 많아서 후반부에는 형식적으로 수업이 흐르는 경향이 있었던 점과 멘토링 수업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 제시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학교측의 지원(예, 수업 활동 시 소요되는 학생 지원비 제공 등)이 부족했던 점을 주요 아쉬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수업 활동의 수행(예, 학습자 1분 스피치 동영상의 탑재 등)이나 좀 더 명확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성과 지향적 수업 체계 개발 및 재학생 선후배 멘토링 제도의 활성화와 보완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학습자(대학 신입생)들은 주로 교양 전략 교과에 운영에 대한 전체 소회를 담은 설문에서 교과 운영의 장점(잇점)과 약점을 서술하였고, 교수자는 강(잇점), 약점의 기술이외에도 주로 세 가지 정도의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제 사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분석·참고하였던, 본 연구의 주 대상자인 대학 신입생들(수강생)들이 작성한 학기말 '성찰일지'를 제시하면서 살펴본 이들의 과정적 변화 측면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학습자 성찰일지의 일부 예시이다.

● A 신입생의 경우(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 수강생)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기간에는 지도 대상 친구들끼리 음식을 사먹으며 어색했던 것을 풀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핸드폰(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으며 자신은 누구이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지 1-3분 정도 분량으로 찍어서 서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게되었고, 말할 때 앓 좋은 습관이나 특정 언어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여 처음보다 좋아지고 받

진된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들을 때 상대방의 시선을 마주치고 바른 자세로 듣는 법을 익힐 수 있었고, 주제 중심 말하기를 할 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중략).....

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동영상이나 발표를 보고 이야기(토론)를 하다 보니 무슨 주제와 말을 꺼내어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을 모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출하였던 주제 선정하여 작성한 리포트의 경우에는 제가 잘쓴건지 못쓴건지 틀린 점과 부족한 점을 빨리 알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 B 신입생의 경우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수업을 하면서, 먼저 (지도)교수님께 찾아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나의 고민거리, 진로, 현재 상황 등을 부담 없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개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영화를 보러가거나 외부 활동(산책)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했던 교수님과 친밀감을 쌓고 고민이나 진로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탈락, 또는 적응하지 못하고 대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신입생(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충북 소재 지역 대학(4년제 지방대학)측- 'E & 교양 교육 센터'-에서 2015년 초부터 본격 준비하고 교과(curriculum)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략교양 교육과정 교과('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 가지 콘텐츠 유형의 팀티칭 운영(표준 교재 중심 운영 vs. 자율 멘토링 운영)의 교육적 효과(사례) 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별 주요 결과 및 논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유형의 팀티칭 교육과정 운영이

전략교양 교과의 교과 수업목표측면(의사소통능력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준 교과 지도 중심 운영 팀’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학교 측이 준비, 개발하여 제공한 표준 강의 계획서와 표준 교재의 콘텐츠 내용대로 진행한 표준 교재 중심 팀티칭 운영 팀이 교과의 핵심적인 교수목표인 ‘의사소통능력 측면’에 좀 더 유의미한 수업 운영의 효과성을 나타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두 가지 유형의 팀티칭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전략 교양 교과를 이수한 전체 수강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활 적응 측면(대학 적응감, 친밀감)에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의 ‘대학 적응감’과 ‘친밀감’에서 각 각 유의한 차이의 변화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즉 이는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이 대학생활 적응 측면(대학 적응감, 친밀감)에 대한 사전, 사후 평정 평가 결과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긍정적인 변화(사후 평정 평가 결과-평균 4.3 이상)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수의 멘토링 교육과정(교과)운영을 통해 단과별 대학 신입생의 학과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던 이인경, 김장희[12] 연구의 친밀도 향상 정도(평균 4.21)보다 우위를 보이는 결과였다(#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은 사전 평정 결과보다 사후 평정 결과에서 향상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음).

이러한 상기의 두 가지 연구 결과는 심리학적 관점 [2][25]에서 볼 때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광의의 청소년기 또는 청장년기)’에 있는 대학 신입생이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표준 교과 지도 방식 및 콘텐츠를 통해서 대학 신입생으로서의 다양한 ‘혼란스러움’ 경험 과정[10]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교과의 핵심 교수목표 성취(의사소통능력 측면의 향상)와 대인관계에서의 증진(교우 및 교수와의 친밀감 증진), 그리고 궁극적인 교과의 목적인 대학 적응감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평행교수 형태의 팀티칭 교수 소그룹 운영 형태는 실질적으로 교수자로 하여금 멘토로서 적극적 튜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수강생이었던 대학 신입생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친밀감을 형성 하기에 유효하였으며, 더불어 학교 측의 물리적 지원 하에 제공된 표준교재 등의 운영 콘텐츠 또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과는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하위 역량[26]인 ‘의사소통능력(언어능력)에의 향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더불어 대학 저학년 대상에게 지향되어야 할 진로역량 교육[27]의 기초가 되는 성과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구체적·공식적인 프로그램(contents)을 통해 신입생들의 대학적응 증진 효과를 확인하였던 여러 관련 선행연구들[8][12][13][28-31]과도 그 맥을 같이하거나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방희명, 박현옥[14]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요인 탐색 연구가 특수교육 및 재활 전공 분야에서 유일한 연구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 및 내용은 예비 특수교사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지도의 기초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전략교양 교과의 지도 교수별 팀티칭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습자(수강생)들과 교수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과의 만족도와 기타 의견이나 인식(강·약점, 개선 의견) 등의 설문 조사 결과,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의 ‘학습자 교과 만족도’와 ‘교수자의 교과 운영 만족도’는 모두 평균 4.33이상으로서 유사한 정도의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은 ‘학습자의 교과 만족도(평균 4.44)’가 ‘교수자의 교과 운영 만족도(평균 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두 유형의 운영 팀 간, ‘학습자·교수자의 교과 만족도’에 대한 비교 검정에서는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교과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율 멘토링 운영 팀’이 조금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수자의 교과 만족도는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이 다소 우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학과) 본부 주도의 동기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 운영 효과를 알아본 국내의 최일수, 박상연[13]의 연구와 이인경, 김장희[12] 연구에서의 교과 운영 만족도(학습자 지각: 평균 3.74와 4.39)보다도 높은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대학 신입생 지원 전략교양 교과 팀티칭 운영 즉, 지도 학생 그룹 대상 및 지도 교수의 공식적

표준 교과 콘텐츠 활용·운영이 매우 유효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밖에 서술형 설문조사와 학습자 성찰일지를 통해 전략 교양 교과 운영 전반이나 교과 내용에 대한 장, 단점과 건의사항 및 정성적 변화 측면 등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교양전략 교과의 핵심적인 교육 목표(의사소통측면과 대인관계에서의 향상)와 관련된 긍정적인 성과나 지도, 점검의 계기 마련이라는 장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단점에 대한 의견에는 차이를 보여, 학습자는 학기말 발표중심의 수업 운영이 다소 부담이 되는 인식을 하며 아쉬움을 호소하였고, 교수자들은 표준교재 구성에 대한 부분적 아쉬움(예, 다수의 소검사 구성 내용이 형식적인 점), 멘토링 수업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 제시나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학교 측의 지원 부족(예, 재정적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단점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습자 건의사항은 없었으며(# 단점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이 적었던 점은 교수자인 지도 교수에 대한 의식 상황으로 추정되기도 함), 교수자들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수업 활동의 개발이나 학습자의 요구가 명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반영된 수업 체계의 개발, 그리고 선후배 멘토링 활성화와 상담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던 적극적인 멘토 및 튜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전담 지도 교수[1][7]가 직접 교수하는 두 가지 유형의 분담 지도 팀티칭(평행교수) 형태[20]의 운영을 통해서 ‘표준 교재 중심 운영 팀과 자율 멘토링 운영 팀’ 두 유형 모두 여러 가지의 강점과 유효성(유대의 강화와 교수-학습의 효율성, 그리고 교과목의 특수성이나 교수의 전문성, 또 학생의 욕구 등을 크게 살리거나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11][31-33]. 이와 더불어,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이해와 적응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개발된 ‘교과 및 콘텐츠의 구성’이 무엇보다 유효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대학, 특정 학과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결과 등을 도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

로 대응 및 독립 표본 T 검정을 적용한 연구 참여 학생 수가 표준교재중심 운영 팀 16명 또 자율적 멘토링 중심 운영팀 9명, 총 25명으로서 적은 한정적 인원으로 시행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어 모든 대학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 연구의 결과 및 결론들과 논의의 내용을 기초로 앞으로의 신입생 대상 교양전략 교과목의 내용과 운영에 관련된 의견 등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번에는 다소 부족하였던 양 팀의 교수 운영 방식-교수자의 다원적 운영 성격-에 따른 준비와 협력, 팀티칭에서의 교수자의 적절한 역할[15]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을 보장하여 학습자의 참여 및 교수 목표 지향의 학생 반응들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이원적 팀 운영에 있어서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성 초래에 중심이 되었던 표준 교재 내용(contents)의 면밀한 점검(예, 교재 내용 중 ‘경청 능력 관련 평가지’의 문항 편집상태 미비)과 함께 교수자의 내용 숙지(예,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교류분석이론’과 같은 특성 전문 내용이 교재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어 이를 교수자로서 설명, 지도하기에 한계가 있음)와 운영 기술의 준비 또한 보완되어야겠다는 점이 요청되며 아울러, 표준 교재 내용 수업 관련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문헌이나 활동의 예시가 좀 더 확대, 포함되었으면 한다.

셋째, 교수자의 자율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팀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개별 또는 1학년 학습자의 요구도(needs)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의 준비 노력이 아쉬운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측면의 애로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에 기반한 팀티칭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보완·개발이 요청된다. 아울러 대학 내 ‘학생 상담지원 센터’ 활동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나 교수자 대상 연수 및 지원의 확충 또한 요청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희, "철학과 문학'의 만남을 통한 토론 교육: 서강대 팀티칭 사례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Vol.6, No.1, pp.71-97, 2013.
- [2] 권이중, 김용구, *청소년교육개론*, 경기: 교육과학사, 2011.
- [3] 오영재,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Vol.25, pp.141-164, 2006.
- [4] L. Cook and M. Friend, "Co-teaching: Guidelines for creation effective practice,"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Vol.28, No.3, pp.1-16, 1995.
- [5] 장충미, "대학에서 멘토링 활용에 대한 탐색," 여성연구논총, Vol.25, pp.183-202, 2010.
- [6] 김영선, 서지영,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모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6, No.6, pp.1439-1452, 2015.
- [7] 송창백, 이근우, "전문대학 '전담지도 교수제' 활성화 방안 탐색," 경북전문대학 논문집, Vol.25, pp.137-155, 2005.
- [8] L. Burnett, *The first year experience project report*. Australia: University of Queensland, 2006.
- [9] D. Rachael and Rents, "Freshm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Coping," J. of Clinic Psychology, Vol.62, No.10, pp.1231-1244, 2006.
- [10] 서현, 송선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Vol.15, No.1, pp.361-391, 2010.
- [11]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4, pp.327-337, 2012.
- [12] 이인경, 김장희, "대학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Vol.12, No.2, pp.673-691, 2011.
- [13] 최일수, 박상연, "경영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적응을 위한 동기유발프로그램의 효과," 경영교육연구, Vol.82, pp.109-128, 2013.
- [14] 방희명, 박현옥, "특수교육 및 재할 전공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시각장애연구, Vol.26, No.3, pp.87-99, 2010.
- [15] 김성식, "팀티칭에서 교사의 역할," 교원 교육, Vol.26, No.1, pp.113-137, 2010.
- [16] G. Kim and J. H. You, "Effects of team teaching in a university setting a preliminary study,"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19, No.1, pp.23-40, 2003.
- [17] M. C. Pugach and L. J. Johnson, *Collaborative practitioners collaborative schools*, Denver: Love, 1995.
- [18] S. Qinn and S. Kanter, *Team teaching: an alternative to lecture fatigue*, (JC 850 005), Paper inabstract Innovation Abstracts (Eric Document Reproductive Service N. ED 251 159), 1984.
- [19] 장원섭, 김선희, 민선향, 김성길, "일의 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요구 조사," 연세교육연구, Vol.15, No.1, pp.99-118, 2002.
- [20] 김상호, "대학교육에서의 팀 티칭 적용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 pp.23-35, 1986.
- [21] 유숙열, 추현택, *대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지침서: 커리어플래*, 영동대학교, 2010.
- [22] A. T. Halvorsen, and T. Neary, *Building inclusive schools: Tools and strategies for success*(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1.
- [23] T. E. C. Smith, E. A. Polloway, J. R. Patton, and C. A. Dowdy,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settings*(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6.
- [24] 박동열, *생애교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개발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06.
- [25] 권두승, 조아미, *성인학습 및 상담*, 경기: 교육과학사, 2011.

- [26]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미래사회를 대비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 pp.445-458, 2016.
- [27] 김양분, 임현정, 남궁지영, 박희진, 이병식, 김위정, 2013 한국교육중단연구-한국 교육 중단연구 2005: 교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25, 2013.
- [28] 김수미, 정경은,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Vol.11, No.4, pp.201-210, 2013.
- [29] 김현숙,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대학 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36, pp.5-19, 2003.
- [30] 이영민, 임정연,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HRD연구, Vol.7, No.4, pp.89-118, 2011.
- [31] 정채린, 문일봉, 김영근, "방사선과 교수 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9, pp.613-621, 2014.
- [32] M. Friend and L. Cook, *Interaction: Collaboration skills for school professionals*, White Plains, NY: Longman. 1996.
- [33] P. Wilcox, S. Winn, and M. Fyvie-Gauld, "It was nothing to do with the university, it was just the peopl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30, No.6, pp.707-722, 2005.

저 자 소 개

류 숙 열(Sook-Ryeol Rhyou)

정회원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학과(문학사)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학과(철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구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특수교육(정서행동장애, 전환교육) 및 교육과정

박 혜 성(Hye-Sung Park)

정회원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학과(문학사)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학과 박사 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구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교육과정 등